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2.13)

1. 전회원 기도회 기도제목/ 북한의 전술핵 운용 부대 실전 훈련과 동시다발적 대남 군사도발 상황을 아뢰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더 이상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한 이후 실천적 군사 행동에 나서며 전술핵 부대의 실전 훈련과 무차별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대남 군사공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한이 상호 공멸의 위협을 무릅쓰고 남한을 향해 극단적 방식의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육.해.공 정규군에 더하여 매우 특수하고 호전적인 병력집단인 '전략군'을 거느린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을 실전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전략 전술을 이미 갖추고 있고 날로 고도화할 것이므로 남한과 미국이 방어하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모략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고 조연과 명철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가 헐어버리시면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놓아줄 수 없으며... 또 그가 나라들을 커지게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나라들을 넓어지게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며 온 땅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로 길 없는 항야에서 떠돌게도 하시며 빛 없는 흑암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신다(욘 12:13-14; 23-25)”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소위 '핵무력 완성'으로 세계 최강에 속하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북한 정권의 자고하는 능력이 주의 모략과 지혜 앞에 무력화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완벽을 기해 무장한 핵 전력이 결국은 자신들을 옴아매는 울무와 함정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막강 군사력이 오히려 체제와 정권의 멸망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 주민과 성도들 모두가 핵 전쟁에 희생되어 공멸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 전회원 기도회 기도제목/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활성화로 체제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도록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여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실제적 우회 전략은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의 유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대한 주민의 충성심이 이상숭배 강요와 세뇌에 의해 조종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때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이 체제의 거짓됨을 자각하고 비판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정보와 접해야 합니다. 북한 안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법은 풍선 날리기, 비무장 지대 대북 확성기 방송, AM.FM 라디오 방송,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 전화 등 다양합니다. 이것이 북한으로 유입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정탐군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대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소 그대들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덮쳤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이 그대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소 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대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신 일과 그대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임금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간담이 녹았고 그대들로 인하여 아예 얼이 빠져버렸소 이는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인 우로 하늘과 아래로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오(수 2:8-11)”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핵보다 더 위력 있는 무기인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하는 일이 날로 활성화되어 체제의 견고한 진에 균열이 생기게 하옵시고, 이를 계기로 진리의 말씀이 북한 전역을 뒤덮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 결과 현재의 북한 체제와 정권은 속히 허물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집권 세력과 국가 운영 시스템이 들어서도록 북한 땅과 백성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3. 1,845 개의 북한 지하교회가 개척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 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세워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지 못한 사역자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보낸 디지털 도구를 통해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지하교회를 섬겼으며 지금까지 1,845 개의 지하교회가 개척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바로 그분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3 장 20-21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2022 년에도 하나님께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개척되도록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봉쇄된 북중 국경이 열려 왕래가 가능해짐으로 지하교회 개척을 위한 훈련과 사역들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식량이 모자라지 않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암 투병 중인 사역자를 살려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사역에 복귀하도록 치유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세워진 1,845 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북한이 열리는 그 날까지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4. 북한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다시 살 힘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빨리 복이 내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여 주저앉아 벼랑 끝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편지 한 장 보냈는데 이렇게 빨리 하늘에서 복이 내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긴 밖이 몹시 춥고 눈이 쌓였습니다. 세상이 춥습니다.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두드리면 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 거듭 올려드립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 잊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눈뜨고 보면 옆집 ○○네, 건너 집 ○○네, 지난 여름 사망한 ○○네 아들들... 다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고 살 겁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2월 『카타콤소식』에 게재된 북한 성도가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성탄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는 숨을 향하여 대언하되 숨을 향하여 대언하며 말하기를 숨아 사방에서 와서 이 살해당한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하신다 하라 그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대언하자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 발로 일어섰으니 이들은 심히 엄청난 무리였다” 에스겔 37 장 9-1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 그대로 핍절한 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여호와와 숨이 되어 살아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여호와와 숨아 사방에서 와서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라’고 외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역사에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옵소서.

5. 탈북 청소년들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탈락률을 줄이기 위해 방문교사 일을 하던 중 탈북 청소년들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고충으로 적응을 못하고, 방과 후에는 혼자 집에 방치되는 것습을 보면서 겨레얼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웃음을 찾아볼 수 없던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성적도 향상되어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겨레얼대안학교 운영육 교장이 66 회 선교 컨퍼런스에서 나눈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는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로마서 8 장 35 절과 37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북한이 아닌 제 3 국에서 태어난 많은 탈북민 자녀들이 언어와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외톨이로 지냅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깨닫고 붙들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육 교장 선생님에게도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